

##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확산에 관한 연구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read of Tourism Contents Using the Big Data (Focused on Jeonju Hanok Village)

유 영 현, 김 상 현\*

상명대학교 창의콘텐츠학과 박사과정

Ryu Yyoung-Hyun, Kim Sang-Heon\*

Sangmyung University

#### 요약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방문객이 어느때 몰리고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활용은 필수적이다.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다양한 욕구를 익어내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야한다. 전주한옥마을의 방문자 분석을 통해 취향과 리즈를 분석,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 I. 서론

‘빅데이터(Big Data)’는 4차산업 혁명의 총아로 불린다.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SNS 이용량 증가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폭발적으로 생성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의 데이터와 빠른 처리, 다양한 분석, 복잡한 구조 및 해석 등을 통칭하여 ‘빅데이터’라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진 수치와 문자,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특히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광객의 수요량을 측정하고, 관광동기와 취향, 만족수준을 수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편리성과 취향을 반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본론-전주한옥마을 방문자 분석

‘전주한옥마을’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교동·풍남동) 일대 7만6320평에 700여채의 전통한옥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한옥들이 밀집해 있는데다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전통공연 관람, 전통주 체험, 전통 주거문화 체험 등을 할 수 있어서 인기 있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한복 대여를 통해 한국의 전통을 즐길 수 있어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심지어 여론조사결과 지난 2017년 5월 한 달간 내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전주한옥마을에서 생성된 휴대전화통신 데이터를 기초로 방문객 정보와 관광시설, 축제, 이벤트에서 발생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2017년 한 해 동안 1109만7033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만402명이 방문했다. 2016년에는 1064만8077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44만8956명이 늘었다. 또, 2015년 방문객 945만8546명과 비교하면 163만8487명이 증가했다.

2017년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국내 관광객은 1098만 5095명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27만3680명(20.7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11만5920명(19.26%), 20대 196만3601명(17.88%), 50대 187만8948명(17.1%)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방문자가 361만5858명으로 전체의 32.91%를 차지해 전북 시·군 관광객(359만3188명)보다 많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경상권 관광객도 전체의 13.68%인 150만2261명으로 1년전(107만668명)보다 43만명 가량이 증가했다. 또, 경상권 5개 시·도 관광객이 유입지역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모두 늘었다. 이는 전주한옥마을이 전 국민이 애용하는 관광지임을 알 수 있다.

방문시기별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FIFA U-20월드컵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린 5월이 117만46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월(102만7120)과 10월(102만3018명), 3월(98만7294명) 순이다.

표 1. 2017년도 한옥마을 방문객 월별 현황 (비율=한옥마을/전주시)

(단위 :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7	973,671	957,820	987,294	1,027,120	1,174,621	898,222	637,020	820,481	833,625	1,023,018	893,571	870,570	11,097,033
방문비율	24.5%	29.4%	28.4%	28.2%	27.1%	21.5%	14.7%	21.1%	19.8%	19.7%	23.2%	21.8%	

표 2. 2017년도 한옥마을 방문객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국내관광객 기준)

구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총 인구
계	74,406	1,126,498	1,963,601	2,115,920	2,273,580	1,878,948	1,552,143	10,985,095
남성	33,643	460,928	870,358	1,083,336	1,204,261	999,226	863,954	5,515,706
여성	40,762	665,570	1,093,243	1,032,584	1,069,319	879,722	688,189	5,469,389

각각 10월과 11월 2달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1박 이상 전주에서 숙박한 체류인원은 지난 2016년 1일 평균 4만1008명에서 지난해 4만1557명으로 약간 늘었다. 이번 한옥마을 관광객 통계 조사는 2017년 전주한옥마을에서 사용된 SKT 등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에서 전주시 거주자가 일으킨 트래픽(1일 기준 시간대·지역별 중복자)을 제외한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사상 최고치 기록”, 보도자료, 2018, 3, 13

## Ⅲ. 결론-정책적 제언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4,5월과 10월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3개월 동안 방문자는 3,224,759명으로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또 연령별로는 30,40대가 가장 많다. 이를 통해 휴일과 축제가 겹치는 기간에 방문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자녀들을 동반한 30, 40대의 방문자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방문자가 집중된 기간에는 한옥마을 골목은 일시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바람에 적체현상이 빚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방통행길’을 만들거나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주차수급 분석을 통해 현재 주말에만 운행 중인 셔틀버스를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평일까지 늘려야 한다. 또 5월과 10월 축제기간에는 평일에도 셔틀버스를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옥마을 주변은 물론 전주 도심교통량 증가에 따른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의 일자별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30~40대 가족단위 방문자를 위한 이벤트를 늘리고,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